

李대통령 “제가 이제 乙, 잘 부탁한다” 추경안 협조 당부

시정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환담
李 “우리 김용태 위원장 잘 부탁”
“정부라는 것은 직진하는 집행기관
의회는 바른길인지 점검하는 기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고 추경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사전 환담에는 우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배석했고,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의장과 함께 접견실에 들어서, 10여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김병기 직무대행과 김용태 위원장, 김선민 권한대행과 차례로 웃으며 악수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해 “우리끼리도 할까요”라며 이들과도 악수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고 있다.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 “우리 김용태 위원장, 잘 부탁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이 바람직하지 끊임없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우 의장이 말씀한 대로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길을 만들 어내는 데 여러 가지 위협적 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다른 시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간 의견이 서로 다를 뿐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리를 인정하고 공존·존중하면서 국민 저력을 모아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함께 우뚝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발언을 마치며 “제가 이제 읊이 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손뼉을 쳤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로 10여분간 차담을 이어간 뒤 본회의장으로 향해 시정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환담을 주재한 우 의장은 “정치는 길을 내는 것으로, 정치와 경제가 매우 어렵고 국제질서도 급변하는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경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의장님

소통해가며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대통령이 적극 소통하려 노력하고 정치 복원에 애쓰는 모습이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방을 몇 번 왔는데 오늘은 입장이 약간 달라져서 이 방에서 의장님

을 뵙게 됐다. 마음을 새로 다 잡게 된다”는 말로 화답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길지 않은 시간 국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정부라는 것이 직진하는 집행 기관이다. 그게 바른길인지 점검하고 함께 검토해주는 의회의 기능, 견제와 감시를 적정하게 잘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은 함께해

/연합뉴스

道,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전기료 최대 25만원 페이백 방식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기대

전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착한가격업소의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요금(전기료)을 사후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400개소에 대해 업소 당 25만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페이백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업소가 올해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지역 경제부서)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산 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역 서민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이라는 2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하는 업소다. 주변 상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는 총 549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50개 소를 추가 발굴해 총 59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발굴·지정 확대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착한가격업소 홍보 강화, 맞춤형 지원 확대 등으로 참여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도록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강진 가금 계류장서 H5형 AI 항원 검출

전남도, 선제적 살처분 등 긴급 조치

전남도는 26일 “강진읍 소재 가금 계류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신속한 조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전통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보관하는 계류장으로 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시장

으로 판매하기 위한 출하 전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하며 1~3일 정도 소요된다.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하다.

전남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

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계류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방역지역 내 기금농장(13호)에 대해 신속히 검사하고 전통시장 기금판매소와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보성서 계약심사 연찬회

원가계산 노하우 공유·우수 생산품 홍보

전남도는 27일까지 이틀간 보성 디비치론도에서 도·시·군 직원 업무역량 강화로 부실시공 예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의 조선이, 도내 기업에는 판로 확대를 위한 좋은 홍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계약심사 담당자와 지역 기업인의 소통 창구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동북댐 봉괴 대비 합동훈련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6일 화순군 동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동북댐 봉괴 대비 비상대처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댐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광주시, 전남도, 화순군 등 유관기관과 화순군내 12개 마을 주민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동북댐 수위 상승으로 인한 댐 봉괴 상황을 가정해 ▲상황발생 전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주민 대피 유도·대피소 이송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단계별 절차를 점검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변은진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담아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